

광주지역 온실가스 배출 2014년 최정점

광주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세가 지난 2014년을 정점으로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기후환경센터는 1월31일 지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 2017 광주지역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인벤토리는 UN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서 제시하는 형식의 온실가스를 체계적 시계열 자료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광주지역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827만1600tCO2eq로, 지난 2010년 809만1500tCO2eq에 비해 2.27% 증가했으며 2014년 850만 4000tCO2eq에 비해서는 2.69% 감소했다.

지역 내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시작한 지난 2000년(587만 tCO2eq) 이후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다, 2015년부터 증가세가 둔화된 것이다.

총배출량 가운데 에너지 부문이 94.09%를 차지했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수송용과 상업용이 각각 28.96%, 23.56%로 높았으며 비에너지 부문에서는 산업공정과 폐기물이 각각 53.59%, 39.15%로 나타났다.

2015년 광주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5.59tCO2eq로 2010년 대비 0.53% 증가했으나 2014년 대비 2.52% 감소했다. 2014년 기준 전국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3.7tCO2eq였다.

광주지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국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은 지역 특성상 화력발전소나 중화학, 철강 등 온실가스 다량 배출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광주지역 내 건축물과 교통, 녹지 부문의 상세배출량은 지난 2015년 건축물과 교통에서 총 575만9400tCO2eq이 배출됐으며 녹지부문에서는 1만5600tCO2eq의 온실가스가 흡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인벤토리 보고서는 국제기후환경센터가 개발한 도시온실가스예측진단(GPD)프로그램과 도시탄소관리(UCM)시스템을 활용해 최신의 데이터를 확보·분석한 것이다.

국제기후환경센터 관계자는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관련 기관과 함께 주의 정책 등에 활용할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며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 정책 마련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광양만 목질계화력발전소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정식 출범

시민단체, 광양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건립계획 백지화 '촉구'

"전국서 갑상선암 발병률 1위, 폐질환 타 도시보다 높아불안"



광양시민단체와 50여개 마을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달 30일 오전 광양시청 정문 앞에서 '광양만목질계화력발전소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정식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을 마치고 기자회견 후 정현복(광양시장) 면담을 마치고 범대위 대표 45명은 정부 종합청사 가 있는 세종시를 향해 떠났다.

이들은 광양그린에너지는 광양 황금산단 내에 우드펠릿을 이용한 발전량 220MW, 국내 최대 규모의 바이오매스화력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광양민권의 대기질 악화를 초래할 발전소 건립을 당장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 광양민권은 이미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심각한 수준을 넘어 한계에 이르렀다며 더 이상 화력발전소 개발을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범대위 출범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미 광양민권에는 총 6개(16기)

된다고 설명하고 초미세먼지는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발암 물질뿐만 아니라 목재 펠릿 연소과정에서 기형유발물질인 벤젠 배출과 일산화탄소 배출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무연탄의 2.8배, 유연탄의 7.6배로 보고되고 있다.(목재펠릿 석탄의 단위 발열량에 따른 사회적 비용 비교분석, 강원대학교 2017)고 설명했다.

또한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경권을 보장하라"며 "그동안 지역민들의 건강과 환경은 무시한 채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발전소, 소각장, 폐기물매립사업체들을 허가하며 산단개발 유치성공에 치중해 왔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광양시의 광양시의회 역시 "이미 정부에 발전소 반대의견서를 보냈지만 결과 속이 다른 행동으로 시민들을 실망시켜 왔다"며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범대위는 경제자유구역청과 산업통산자원부에 발전소 개발 및 공사 계획인기를 내주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2018년 지방선거에서 시민의 주권으로 우리의 건강권과 주거권을 무시한 지역의 대표를 엄중하게 평가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이날 광양시의원으로는 박(가산거구)도 의원과 이(가산거구)모 의원, 심(비례)도 의원이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광양=김충권 기자

'인터넷 게임용 디도스' 판매자 등 9명 입건

유명 온라인 게임에서 손쉽게 상대를 이길 수 있는 디도스(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사용한 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게임 서버를 다운시키는 불법 디도스 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해의 유학생 A(19)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월31일 밝혔다.

경찰은 A군에게 디도스 프로그램을 구매해 사용한 B(20)씨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B씨 등 45명에게 사용 기간에 따라 5만~9만원을 받고 디도스 프로그램을 판매해 1000여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뉴질랜드 모 대학을 다니며 유학 생활 중인 A군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의 여권을 무효화 조치하는 등 국제 공조를 통해 붙잡았다.

A군이 판매한 프로그램은 인터넷 게임 사용자의 컴퓨터 IP를 알아낸 뒤 해당 IP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패킷(Packet·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기 쉽도록 잘게 쪼개 데이터 조각)을 보내 상대방의 게임 서버를 다운시킬 수 있다.

A군에게 프로그램을 구입한 B씨 등은 이 같은 방식으로 게임 상대를 손쉽게 이기며 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방해했다.

경찰은 B씨 등 8명 외에 디도스 프로그램을 구입한 나머지 37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신봉우 기자

'흙친 차로 경찰과 추격전' 10대들 긴급체포

흙친 차를 타고 도심을 다니다가 경찰이 뒤쫓자 추격전을 벌인 10대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월 31일 특수정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김모(17)군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군 등은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전주 일대를 돌며 열쇠가 꽂혀있는 차량 4대를 흙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잡가지 않은 차량을 털어 11차례에 걸쳐 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동네 순후배 사이인 이들은 전주 시내를 돌며 차량 속에 있는 금품을 훔치다 차가 꽂혀 있는 차량을 발견하면 훔쳐 타고 다녔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뒤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1월 30일 오후 4시30분께 피해 차량을 발견했다.

순찰차가 피해 차량을 특정하고 뒤쫓았지만 김군 등은 차를 멈추지 않고 도주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전주시 완산동에서 진북동까지 5km가 넘는 추격전을 벌였다. 하지만 차를 버리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모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흙친 차량 범죄 사용 여부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손님 가장해 식당서 금품 훔친 50대 구속

손님을 가장해 음식점에서 금품을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음식점에 손님인 척 들어가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57)씨를 구속했다고 1월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10시28분께 서구 비산동 한 음식점에 손님인양 들어가 업주가 한눈을 파는 사이 현금 350만 원과 명품 가방 등 총 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전과 14번인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고라니 피하려다' 교통사고 잇따라

도로로 나온 야생동물들을 피하려다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1월31일 오전 5시11분께 강원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의 외곽도로에서 세라로 승용차가 갑자기 튀어나온 고라니를 피하러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이 반파되면서 동승자 김모(31)씨 등 1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지난달 30일 오후 6시47분께 철원군 갈말읍 문해리의 한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고라니를 피하러다 프라이드 승용차가 2m 아래 골짜기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김모(38)씨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최남규 기자

광주기상청, 광주·전남 오는 6일까지 추위 지속

3~4일 눈 예보 "체감온도 낮아...건강관리 유의해야"

오는 6일까지 광주·전남지역에 한파가 지속될 전망이다.

1월31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곡성 영하 10.4도, 보성·구례 영하 10.1도, 화순 영하 9.5도, 담양 영하 9.4도, 해남 영하 9.1도, 나주 영하 9도, 장흥 영하 8.9도, 장성 영하 8.4도, 영암 영하 8.2도, 광주 영하 5도 등의 분포를 보였다.

낮 최고 기온은 3~6도를 보이겠지만 찬바람으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이번 추위는 6일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점차 누그러질 전망이다.

특히 3~4일에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광주·전남 지역에 눈

이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눈이 그친 뒤에는 4~8m/s의 강한 바람으로 체감 온도는 더욱 떨어지겠으며, 서해남부와 남해사부 전 해상에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8일까지는 기온이 평년보다 낮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